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18, No. 1, pp. 17~29

제7차 「기술·가정」 교과 운영에 대한 교사의 애로점, 교수 활동 자신감 및 만족도
-대구광역시 중·고교 「기술·가정」 교과 담당 교사를 중심으로-

최 지 혜*·장 현 숙**
아양중학교* · 경북대학교**

The Problems, Confidence and Satisfaction of Teachers on Implementation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Subject in the 7th Curriculum

Choi, Ji-Hye* · Jang, Hyun-sook**
*Ayang Middle School**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problems, confidence and satisfaction of teachers on the subject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For this research, questionnaires were sent by post to teachers who teach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in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technically analyzed by SPSS/WIN 10.0 program, which measured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data, they were also analyzed by t-test and cross tabulation analys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were two teaching types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he partial charge and the whole charge teaching according to teachers' majors, and both types occurred in similar percentage. The partial charge teaching means that teachers majoring in technology teach only the technology part and teachers majoring in home economics teach only the home economics part when they teach the same subject,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hese days the partial charge teaching more often occurs in national or public schools than in private schools, and in coeducational schools than in girls' or boys' schools.

2) The major problems of teaching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were caused in order by teachers' lack of skills and knowledge which are not their own major, the lack of students' interests and teaching materials,

1) 교신저자 : 최지혜(jihye0927@hanmail.net),

and burden of tests.

3) Teachers' confidence in teaching the contents of the subject,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ir majors. Teachers whose major was technology felt more confident when they taught the chapters of the textbooks related to their major, technology, while teachers whose major was home economics felt more confident when they taught the chapters of the textbooks related to their major, home economics. According to implementation types, the partial charge teaching gave higher confidence to the teachers than the whole charge one in teaching almost all the chapters of the textbook.

4) According to implementation types, teachers' satisfaction was showed to be higher in the partial charge teaching than in the whole charge one.

주제어(Key Words) : 분담지도(partial charge teaching), 전담지도(whole charge teaching), 교수활동자신감(confidence in teaching), 만족감(satisfaction)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교육이란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활동이며, 이러한 의도적인 활동을 대표하는 것이 학교교육이다. 학교교육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할 것인가를 교육과정을 통해 제시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1954년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을 시작으로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사회적·시대적 요구 및 지식의 변화 등에 따른 개정 요구에 의해 모두 7차에 걸쳐 개편되었다.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학교현장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목과 교과 내용, 이수 대상, 필수·선택 구분, 주당 시간 배당 등 교육과정의 편제가 바뀌어 왔다(곽노선, 2001).

「기술·가정」 과목의 경우 남·녀 모두가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을 원만하게 영위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87년 제5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신설되었으나 이를 선택하는 학교는 극소수였으며, 대부분의 학교는 남학생에게는 「기술」을, 여학생에게는 「가정」을 선택하여 가르쳤다. 1992년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술·가정」이 폐지되고 기술과 산업 관련 교과목을 통합한 「기술·산업」과 가정과 가사 과목을 통합한 「가정」 두 교과 모두를 남녀 공통 필수로 운영하여 종래까지의 성 역할에 따라 「기술」과 「가정」 교과가 선택되었던 것이 개선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2001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감소시키고, 교육의 내실화 및 학생의 창의성 신장이라는 취지 아래 10개의 국민 공통 필수 교과가 제정되었고, 이 원칙에 따라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가정」 교과와 「기술·산업」 교과는 「기술·가정」이라는 교과명으로 통합되어 중학교 1학년인 7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인 10학년까지 남녀 공통 필수로 이수토록 편제되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의 과정과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과 「가정」이 통합 운영됨으로서 교육 현장에서는 부전공 연수의 강요와 연수 거부 사태, 교사의 전문성 약화, 교사 수급의 혼란, 소규모 학교에서 교과 운영의 파행, 교과 경시 풍조 확산 등 숱한 문제점(김영종, 2003)의 야기를 가져왔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기술·가정」 교과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기술·가정」 교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1> 교사 및 학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기술·가정」 교과의 운영형태에 차이가 있는가?

1.1 교사의 특성(전공, 부전공 유무, 비전공 영역 지도 경험 유무)에 따라 교과의 운영 형태(전담지도, 분담지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학교의 특성(학교유형, 학급규모, 설립유형)에 따라 교과의 운영형태(전담지도, 분담지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2> 교사 및 학교의 운영형태에 따라 「기술·가정」 교과 담당 교사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2.1 교사의 특성(전공, 부전공 유무, 비전공 영역 지도 경험 유무) 및 교과 운영형태 (전담지도, 분담지도)에 따라 교사의 애로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교사의 특성(전공, 부전공 유무, 비전공 영역 지도 경험 유무) 및 교과 운영형태 (전담지도, 분담지도)에 따라 교사의 교수 활동 자신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교사의 특성(전공, 부전공 유무, 비전공 영역 지도 경험 유무)에 따라 교과 운영 형태(전담지도, 분담지도)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기술·가정」 교과는 제5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신설되었다가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폐지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다시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기술·가정」 교과와 관련된 선행 연구도 주로 제5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운영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기술·가정」 교과 운영상 애로점에 관한 연구

「기술·가정」 통합 교과 내용 구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박인애(199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이 통합 교과 수업 운영상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으로는 자신의 전공 이외의 타 전공 영역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응답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의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내용과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연구한 김지숙(199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술·가정」 교과가 각각의 교사들에 의해 분담지도 되고 있어 교육 목표와 지도 및 평가에서 고유한 특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실습실 및 실습 자료의 부족과 수업시수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기술·가정」 교과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업시수의 확충과 실험·실습기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기술·가정」 교과의 효율적인 수업 형태에 대해 연구한 백일순(1992)은 교사들의 수업 운영상 가장 큰 애로점은 전문성을 지니지 못한 채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효율적인 수업 형태는 기술과 교사와 가정과 교사가 전공 분야별 분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술·가정」 교과 운영에 대한 교사, 학교장, 교육전문직의 인식과 요구 및 관련변수를 비교한 곽노선(2001)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사 전문성 문제, 과원 교사 문제, 교과 지도 교사의 자격 문제, 교과 지도 방법의 문제 순으로 교과 운영상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가정 교과 병합에 따른 교과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김영종(2003)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이 기술 교과와 가정 교과의 병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교과 병합에 따른 전문성의 약화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으며, 현행 교육과정에서 바람직한 교과 운영 방안으로는 팀티칭에 의한 지도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교사의 교수 활동 자신감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인애(199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통합 교과 내용 구성에 관해 과반수의 학생들이 불만족하였으며, 교사의 경우는 학생들보다 더욱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가정」 교과의 교육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에 관한 김승수(1993)의 연구 결과에서는 교사의 대부분이 교과 내용이 매우 미흡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가정」 교과 운영에 대한 교사, 학교장, 교육전문직의 인식과 요구 및 관련변수를 비교한 곽노선(2001)의 연구에 따르면, 비전공 영역을 지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껴 교사 만족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비전공 영역의 내용이 소홀히 취급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사가 전담지도 하는 것은 비전공 영역에 대한 지도가 교직의 전문성을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 자신의 교과지도와 관련한 자신감과 만족감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기술·가정」 통합에 대해서는 특히, 교사들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가정」과와 「기술·산업」과 교사의 교수 행동과 교수 만족도를 비교한 손순희(2001)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남교사일수록, 교육 경력이 오래될수록, 가정과 관련된 전공자일수록 교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 교사가 비전공 교사나 지원 교사에 비해 다양한 교수 행동 실태를 나타냈다.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운영형태와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손순옥(2002)의 연구 결과를 보면, 「기술·가정」 교과의 운영형태는 교과 관련 교사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전담지도하는 교사는 분담지도하는 교사에 비해 전공별 영역 지도에 대한 부담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부전공 자격을 소지한 경우 자신감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부전공 자격 소지가 특히 이론 지도 활동에 대한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7차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한 권지영(2003)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교육상황 평가에서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에 진로 탐색이 더 반영되어야 하고, 시간 배당, 내용 수준, 내용 분량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가정과 교사의 자신감은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났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 수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고인숙(2003)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현재의 교과 시수 부족에 대해 가장 불만족했으며, 비전공 교과를 지도하면서 교사 자신의 지식 부족이나 자신감 결여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이 생각하는 「기술·가정」 교과의 바람직한 운영 방법은 영역별 분담지도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 「기술·가정」 교과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난, 교사의 교과 운영 형태와 관련된 애로점, 교사의 교수 활동 자신감 및 운영형태에 대한 만족도를 지역을 달리하여 조사해 봄으로써, 앞으로 「기술·가정」 교과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2004학년도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는 국립 1개교, 공립 80개교, 사립 34개교로 총 115개교이며, 일반계 고등학교는 국립 1개교, 공립 26개교, 사립 38개교로 총 65개교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전체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기술·가정」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4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중학교 115개교는 학급수에 따라 2-3부씩, 고등학교 65개교는 기술·가정교과를 지도하는 1학년 담당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학교당 2부씩, 총 400부의 질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우편을 통해 반송 협조를 구하고 추후 전화로 협조를 구한 결과 중학교 75개교에서 108부, 고등학교 38개교에서 76부가 회수되어 총 184부가 되었으며, 회수율은 46%였다. 이중 대답이 누락되거나 부실한 것 23부를 제외하고 총 16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 도구는 질문지로서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가정」과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사 개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 6문항, 조사 대상 학교의 특성을 묻는 문항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사 개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성별, 교육경력, 주전공 과목, 부전공 유무, 비전공 영역 지도경험 유무, 주당 수업 시수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대상 학교의 특성에 관한 문항은 학교유형, 학급규모, 설립유형을 조사하였다. 주전공 과목은 가정 전공과 기술 전공으로 나누어, 산업 관련 전공은 기술 전공에 포함시켰으며, 부전공 유무에서는 「기술·가정」 교과와 관련된 부전공만 부전공 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포함시켰으며, 비전공 영역 지도경험도 「기술·가정」 교과와 관련된 비전공 영역 지도경험만 포함시켰다.

각 학교의 「기술·가정」 교과 운영 형태 및 애로점을 알

아보기 위해 하위 5개문항 (비전공 영역의 지식 부족, 비전공 영역의 기능 부족, 수업 자료 부족, 평가에 대한 부담, 학생들의 흥미 저하 정도)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기술·가정」 교과를 지도할 때 교사가 느끼는 애로점이란 비전공 영역의 지식 부족, 비전공 영역의 기능 부족, 수업 자료 부족,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 학생들의 학습 흥미 저하 등으로 인해 교사가 느끼는 수업 준비 및 진행시의 어려운 상황 및 느낌을 의미한다.

「기술·가정」 교과의 내용 영역에 대한 교수 활동 자신감을 알아보기 위해 교사의 교수 활동을 수업 준비 활동, 수업 활동, 평가 활동으로 나눈 후 수업 활동은 다시 이론지도 활동과 실습지도 활동으로 나누어 각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문항을 각 학년별로 구성하였다.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4개 학년의 교과 내용 영역을 각 학년별로 구성하여 자신감의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별로 현재 교사가 지도하고 있는 학년의 단원에 대해서만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지도 내용 영역별 자신감의 차이를 측정한 이유는 교사의 일반적 특성 및 교과 운영형태에 따른 자신감의 차이를 지도 내용 영역별로 비교 분석해 보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신감이란 용어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자신감 있음'이란 전문지식이 충분하고 잘 가르칠 자신감도 있음, '자신감 없음'이란 전문지식은 어느 정도 있으나 잘 가르칠 자신감은 별로 없음, '약간 도움 필요'란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하여 동료 교사의 도움이 약간 필요한 상태, '많은 도움 필요'란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동료 교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운영형태(전담지도, 분담지도)에 따른 교사의 만족도는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만족 수준을 측정하였다. 교사의 만족도란 교사 자신의 교과 지도와 관련하여 교과 운영형태(전담지도 및 분담지도)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

3. 자료 처리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기본적인 분석 방법으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내용에 따라 교차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기술·가정」 교과 담당 교사 및 학교의 일반적인 특성

「기술·가정」 교과 담당 교사의 일반적 특성을 교사 개인의 일반적 특성과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일반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기술·가정」 교과 담당 교사 개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 와 같다.

〈표 1〉 조사 대상 교사의 일반적 특성

N=161

변 인	구 분	N	%
성별	남	61	37.9
	여	100	62.1
교육경력	5년미만	28	17.4
	5년이상 10년미만	14	8.7
	10년이상 15년미만	25	15.5
	15년이상 20년미만	37	23.0
	20년이상	57	35.4
주전공과목	가정	94	58.4
	기술	67	41.6
부전공 유무	유	54	33.5
	무	107	66.5
비전공 영역 지도 경험 유무	유	72	44.7
	무	89	55.3
주당수업시수	15시간이하	29	18.0
	16~20시간	106	65.8
	21시간이상	26	16.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교사는 남교사 37.9%, 여교사 62.1%로 여교사가 더 많았으며, 교육경력은 5년이상 10년미만인 교사가 8.7%로 가장 적었고,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인 교사가 35.4%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제6차 교육과정부터 「가정」과 「기술·산업」 과목의 주당 시수가 감소되어 최근 몇 년 동안 신규 임용이 줄어들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전공 과목은 가정 전공 교사가 58.4%, 기술 전공 교사가 41.6%로 가정 전공 교사가 더 많았으며, 「기술·가정」 교과와 관련된 비전공 영역의 부전공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조사 대상 교사의 33.5%이고, 「기술·가정」 교과와 관련하여 비전공 영역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조사 대상 교사의 44.7%였는데, 이는 「가정」 교과와 「기술·산업」 교과가 남녀 공통으로 이수되기 시작한 6차 교육과정 시행 초기에 각 전공별 교사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남자중학교나 여자중학교에 근무했던 교사와 가정과와 기술과 교사를 모두 배치할 수 없는 소규모 학교에 근무한 교사들이 자신의 전공 영역이 아닌 「기술·산업」이나 「가정」을 지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학교 가정 교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조현희(1997)의 연구 결과를 보면, 6차 교육과정 개정 후 다른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가정과 교사의 45%였고, 가정과 교사가 가르치는 과목 중 82.2%가 「기술·산업」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는 16-20시간이 전체의 65.8%로 가장 많았으며, 주당 수업 시수가 21시간이상 되는 교사도 16.1%나 되었다.

<표 2> 대구광역시 소재 전체 중·고등학교 및 조사 대상 학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대구광역시		조사대상학교	
		N	%	N	%
학교유형	남자중학교	14	7.8	10	6.2
	여자중학교	10	5.6	5	3.1
	남녀공학중학교	91	50.6	77	47.8
	남자고등학교	19	10.6	19	11.8
	여자고등학교	14	7.8	24	14.9
	남녀공학고등학교	32	17.8	26	16.1
학급규모	15학급이하	20	11.1	5	3.1
	16-29학급	66	36.7	59	36.6
	30학급이상	94	52.2	97	60.2
설립유형	국·공립	108	60.0	96	59.6
	사립	72	40.0	65	40.4
계		180	100.0	161	100.0

대구광역시 소재 전체 중·고등학교(2004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통계 참고) 및 조사 대상 학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2. 교사 및 학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운영형태의 차이

조사 대상 학교의 「기술·가정」 교과의 운영형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기술·가정」 교과의 운영형태

N=161

기술·가정 교과 운영형태	N	%
전담지도	80	49.7
분담지도	81	50.3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가정」 교과의 경우 한 사람의 교사가 기술 영역과 가정 영역을 모두 지도하는 전담지도는 조사 대상 교사의 49.7%이고, 가정과 교사와 기술과 교사가 영역별로 나누어 지도하는 분담지도는 조사 대상 교사의 50.3%였다. 중학교에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첫 해인 2001학년도의 운영형태를 조사한 논문을 보면(손순옥, 2002) 조사 대상 교사 284명 중 79.6%인 226명이 전담 지도이고, 20.4%인 58명이 분담지도였으며, 2002학년도의 운영형태를 조사한 논문을 보면(김영종, 2003) 조사 대상 교사 176명 중 분담지도가 61명(34.7%)이었고, 2002학년도의 운영형태를 조사한 또 다른 논문(고인숙, 2003)에서는 조사 대상 교사 107명 중 62명인 58.5%가 전담지도인 점과 비교하면, 대상지역의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시행초기보다는 분담지도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곽노선(2001)은 「기술·가정」 교과의 경우 가정과 교사와 기술과 교사가 자신의 전공 영역에 따라 영역별로 분담지도 하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을 재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은 「기술·가정」 교과의 운영형태가 조사 대상 교사의 개인적 특성이나 학교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술·가정」 교과의 운영형태 차이

N=161, N(%)

변 인	구 분	전담지도	분담지도	계	X^2
성별	남	29(18.0)	32(19.9)	61(37.9)	.181
	여	51(31.7)	49(30.4)	100(62.1)	
교육경력	5년미만	13(8.1)	15(9.3)	28(17.4)	.962
	5년이상 10년미만	7(4.3)	7(4.3)	14(8.7)	
	10년이상 15년미만	11(6.8)	14(8.7)	25(15.5)	
	15년이상 20년미만	18(11.2)	19(11.8)	37(23.0)	
	20년이상	31(19.3)	26(16.1)	57(35.4)	
주전공과목	가정	48(29.8)	46(28.6)	94(58.4)	.171
	기술	32(19.9)	35(21.7)	67(41.6)	
부전공 유무	유	28(17.4)	26(16.1)	54(33.5)	.152
	무	52(32.3)	55(34.2)	107(66.5)	
비전공 영역 지도 경험 유무	유	33(20.5)	39(24.2)	72(44.7)	.775
	무	47(29.2)	42(26.1)	89(55.3)	
주당수업시수	15시간이하	16(9.9)	13(8.1)	29(18.0)	2.632
	16~20시간	48(29.8)	58(36.0)	106(65.8)	
	21시간이상	16(9.9)	10(6.2)	26(16.1)	

〈표 5〉 학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술·가정」 교과의 운영형태 차이

N=161, N(%)

변 인	구 분	전담지도	분담지도	계	X^2
학교유형	남자중학교	7(4.3)	3(1.9)	10(6.2)	18.318**
	여자중학교	2(1.2)	3(1.9)	5(3.1)	
	남녀공학중학교	31(19.3)	46(28.6)	77(47.8)	
	남자고등학교	11(6.8)	8(5.0)	19(11.8)	
	여자고등학교	20(12.4)	4(2.5)	24(14.9)	
	남녀공학고등학교	9(5.6)	17(10.6)	26(16.1)	
학급규모	15학급이하	4(2.5)	1(0.6)	5(3.1)	1.904
	16-29학급	29(18.0)	30(18.6)	59(36.6)	
	30학급이상	47(29.2)	50(31.1)	97(60.2)	
설립유형	국·공립	29(18.0)	67(41.6)	96(59.6)	36.098***
	사립	51(31.7)	14(8.7)	65(40.4)	

** $p < .01$, *** $p < .001$

교사의 개인 특성과 「기술·가정」 교과 운영형태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교육경력, 주전공과목, 부전공 유무, 비전공 영역 지도 경험 유무, 주당 수업 시수와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조사 대상 학교의 일반적 특성과 「기술·가정」 교과 운영형태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

립유형과 학교유형에 의해 유의한 관련을 보였고, 학급규모와는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41.6%의 학교에서 분담지도가 이루어진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는 8.7%의 학교에서만 분담지도가 이루어졌고 31.7%의 학교에서는 전담지도가 이루어졌는데($p<.001$), 이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사 전출입에 의해 각급 학교에 가정과 교사와 기술과 교사가 같이 배치될 수 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 새로 교사를 뽑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기존의 교사에게 가정과 영역과 기술과 영역을 모두 가르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녀공학 중학교와 남녀공학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 아닌 학교에 비해 유의하게 영역별 분담지도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p<.01$). 김효순(1997)의 연구에서도 가정을 전공한 교사와 가정을 전공하고 다른 교과목을 지원하는 교사는 여자중학교와 국·공립 중학교에 치중되어 있으며, 가정을 전공하지 않고 가정을 가르치는 교사는 남자중학교와 사립중학교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기술·가정」 교과의 운영형태, 즉 전담지도와 전공 영역별 분담지도는 교사의 개인 특성보다는 주로 학교 특성 변인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술·가정」 교과 담당 교사의 전공, 부전공 유무, 비전공 영역 지도경험 유무, 운영형태에 따른 애로점의 차이

「기술·가정」 교과가 처음 운영되던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비전공 영역에 대한 지식 부족에 대한 애로가 가장 많이 지적되어 온 문제이며(김승수, 1993; 김지숙, 1991), 곽노선(2001)의 연구에서도 「기술·가정」 교과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로 교과 내용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는 바, 제7차 교육과정이 모든 학년에 적용되고 있는 2004학년도에는 교사들이 「기술·가정」 교과 지도시 어느 정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표 6〉 「기술·가정」 교과 담당 교사의 애로점

N=161, N(%)

애 로 점	전혀 없음	별로 없음	보통	조금 있음	매우 많음	계	평균	표준편차
비전공 영역의 지식 부족	5(3.1)	29(18.0)	38(23.6)	60(37.3)	29(18.0)	161(100.0)	3.49	1.08
비전공 영역의 기능 부족	3(1.9)	22(13.7)	40(24.8)	68(42.2)	28(17.4)	161(100.0)	3.60	.99
수업 자료 부족	4(2.5)	33(20.5)	53(32.9)	56(34.8)	15(9.3)	161(100.0)	3.28	.98
평가에 대한 부담	6(3.7)	50(31.1)	52(32.3)	45(28.0)	8(5.0)	161(100.0)	2.99	.97
학생들의 학습 흥미 저하	2(1.2)	35(21.7)	44(27.3)	61(37.9)	19(11.8)	161(100.0)	3.37	.99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들이 「기술·가정」 교과 지도시 애로를 느끼는 정도는 평균을 3점으로 봤을 때 '평가에 대한 부담'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이 평균 3점을 넘어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로를 많이 느끼는 항목은 '비전공 영역의 기능 부족', '비전공 영역의 지식 부족', '학생들의 학습 흥미 저하', '수업 자료 부족', '평가에 대한 부담'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기술·가정」 교과 지도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는 문제는 비전공 영역의 기능과 지식 부족이며, 이러한 결과는 제5차 교육과정 적용 시기의 「기술·가정」 교과 교육 실태와 관련된 선행 연구(김승수, 1993; 김지숙, 1991; 박인애, 1991; 백일순, 1992) 및 곽노선(2001)의 연구에서 자신의 전공 영역이 아닌 타 영역의 지도에서 수업 내용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으로 애로를 느낀다고 지적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비전공 영역에 대한 기능과 지식 부족, 전문성 부족에 따른 평가에 대한 부담과 수업 자료 개발 및 활용 능력 저하는 학생들의 학습 흥미 저하로 이어져 교수 학습의 질적 저하가 야기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기술·가정」 교과 지도시 애로를 느끼는 정도가 전공, 부전공 유무, 비전공 영역 지도 경험 유무, 운영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가정」 교과 담당 교

〈표 7〉 교사의 일반적 특성 및 교과 운영형태에 따른 교사의 애로점에 대한 차이

N=161

애 로 점	전공				부전공 유무				비전공 영역 지도 경험 유무				운영형태			
		N	평균	t		N	평균	t		N	평균	t		N	평균	t
비전공 영역의 지식 부족	가정	94	3.60	1.469	유	54	3.37	-1.005	유	72	3.50	.098	전담	80	3.50	.109
	기술	67	3.34		무	107	3.55		무	89	3.48		분담	81	3.48	
비전공 영역의 기능 부족	가정	94	3.68	1.253	유	54	3.56	-.370	유	72	3.57	-.308	전담	80	3.66	.843
	기술	67	3.48		무	107	3.62		무	89	3.62		분담	81	3.53	
수업 자료 부족	가정	94	3.40	1.937	유	54	3.37	.838	유	72	3.25	-.344	전담	80	3.41	1.729
	기술	67	3.10		무	107	3.23		무	89	3.30		분담	81	3.15	
평가에 대한 부담	가정	94	3.11	1.753	유	54	2.98	-.114	유	72	3.11	1.382	전담	80	2.95	-.567
	기술	67	2.84		무	107	3.00		무	89	2.90		분담	81	3.04	
학생들의 학습 흥미 저하	가정	94	3.39	.316	유	54	3.24	-1.200	유	72	3.42	.505	전담	80	3.28	-1.243
	기술	67	3.34		무	107	3.44		무	89	3.34		분담	81	3.47	

사가 애로를 느끼는 정도는 전공으로는 가정 전공 교사가 기술 전공 교사보다 더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비전공 영역에 대한 부전공 자격 소지 여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부전공 자격 연수가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교사의 애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란 기대에서 실시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부전공 연수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강의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실습 지도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장에 적용해 볼 기회도 없이 진행되므로 교과 지도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전공 영역 지도경험 유무, 운영형태에 따라서도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 「기술·가정」 교과의 내용 영역에 대한 교수 활동 자신감

교사의 역할 중에서 학습 지도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연숙, 1997)이며, 교수·학습 지도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교사의 만족감 및 교과 교육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기술·가정」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전공, 부전공 유무, 비전공 영역 지도경험 유무, 운영형태에 따른 교수 활동 자신감의 차이를 t-검증해 본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에 따른 교사의 자신감에서는 가정 영역에 해당하는 단원은 가정과 교사의 자신감이 더 높았고 기술 영역에 속하는 단원은 기술과 교사의 자신감이 더 높았다. 다만 단원에 따라 유의수준이 다소 달랐는데, 7학년의 '미래의 기술', '제도의 기초', 8학년의 '기계의 이해', '재료의 이용', 10학년의 '에너지와 수송', '건설기술의 기초' 단원과 같은 기술 영역 분야가 $p<.001$ 수준에서 가정 전공 교사보다 기술 전공 교사가 자신감이 더 높았고, 8학년의 '의복 마련과 관리', 9학년의 '가족의 식사 관리', '전기 전자 기술', 10학년의 '가정 생활 설계', '가정 생활의 실제' 단원은 $p<.01$수준에서 가정 관련 단원은 가정 전공 교사가, 기술 관련 단원은 기술 전공 교사가 자신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7학년의 '나와 가족의 이해',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8학년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9학년의 '가족생활과 주거' 단원은 $p<.05$ 수준에서 가정 전공 교사가 자신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단원은 유일하게 9학년의 '산업과 진로' 단원이었는데, 이는 가정 교과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진로를 강조하고,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진로탐색을 강조하여 왔으며, 기술 교과에서도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는 태도와 능력을,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는 능력과 태도를 강조하여 왔으므로 가정과 교사와 기술과 교사 모두에게 비교적 친숙한 단원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전공별로는 거의 모든 단원이 유의성을 보인 것과는 달리 부전공 자격 소지 여부와 비전공 영역의 지도 경험 유무

〈표 8〉 교사의 일반적 특성 및 교과운영 형태에 따른 교수 활동 자신감의 차이

N=161

학년	내용 영역		전공				부전공 유무				비전공 영역 지도 경험 유무				운영형태			
				N	평균	t		N	평균	t		N	평균	t		N	평균	t
7학년	가족과 일의 이해	나와 가족의 이해	가정	30	3.83	2.886*	유	10	3.78	.840	유	18	3.78	1.383	전담	24	3.60	-.454
			기술	8	2.94		무	28	3.59		무	20	3.51		분담	14	3.70	
	생활기술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가정	30	3.88	3.182*	유	10	3.88	1.878	유	18	3.71	.509	전담	24	3.56	-1.109
			기술	8	2.81		무	28	3.57		무	20	3.60		분담	14	3.80	
		미래의 기술	가정	22	2.81	-4.251***	유	14	3.21	-.183	유	20	3.39	.967	전담	24	2.91	-3.627**
			기술	19	3.76		무	27	3.27		무	21	3.12		분담	17	3.74	
		제도의 기초	가정	22	2.77	-5.992***	유	14	3.32	.087	유	20	3.58	2.016	전담	24	3.00	-3.267**
			기술	19	3.92		무	27	3.30		무	21	3.05		분담	17	3.74	
8학년	생활기술	의복 마련과 관리	가정	25	3.87	3.356**	유	10	3.63	.561	유	18	3.53	.267	전담	20	3.34	-1.089
			기술	12	2.69		무	27	3.44		무	19	3.45		분담	17	3.66	
		기계의 이해	가정	12	2.26	-5.089***	유	11	3.11	-.834	유	15	3.52	1.000	전담	20	2.86	-3.316**
			기술	28	3.77		무	29	3.40		무	25	3.20		분담	20	3.78	
		재료의 이용	가정	12	2.31	-5.076***	유	11	3.41	.111	유	15	3.63	1.287	전담	20	2.91	-3.472**
			기술	28	3.84		무	29	3.37		무	25	3.23		분담	20	3.85	
	생활 자원과 환경의 관리	자원의 관리와 환경	가정	24	3.77	2.063*	유	10	3.58	-.340	유	22	3.77	1.934	전담	20	3.53	-1.177
			기술	18	3.43		무	32	3.64		무	20	3.46		분담	22	3.72	
9학년	가족과 일의 이해	산업과 진로	가정	8	3.44	-.728	유	7	3.39	-.781	유	9	3.61	.033	전담	14	3.55	-.474
			기술	18	3.68		무	19	3.68		무	17	3.60		분담	12	3.67	
	생활기술	가족의 식사 관리	가정	25	3.90	4.679**	유	7	3.57	-.106	유	14	3.64	.340	전담	17	3.31	-2.736*
			기술	9	2.75		무	27	3.60		무	20	3.56		분담	17	3.88	
		전기 전자 기술	가정	7	2.46	-3.432**	유	7	3.50	.632	유	8	3.34	.123	전담	15	3.25	-.390
			기술	18	3.64		무	18	3.24		무	17	3.29		분담	10	3.40	
	생활 자원과 환경의 관리	가족 생활과 주거	가정	24	3.79	2.604*	유	8	3.78	.778	유	14	3.73	.621	전담	18	3.61	-.931
			기술	10	3.40		무	26	3.64		무	20	3.64		분담	16	3.75	
10학년	가족과 일의 이해	가정 생활 설계	가정	45	3.93	3.602**	유	26	3.68	-.682	유	26	3.70	-.442	전담	40	3.66	-1.991
			기술	15	3.17		무	34	3.78		무	34	3.76		분담	20	3.89	
	생활기술	가정 생활의 실제	가정	45	3.79	4.226**	유	26	3.52	-.051	유	26	3.49	-.309	전담	40	3.36	-3.268**
			기술	15	2.72		무	34	3.53		무	34	3.55		분담	20	3.85	
		에너지와 수송	가정	26	2.15	-8.131***	유	24	3.10	1.134	유	24	2.92	-.052	전담	39	2.72	-3.884***
			기술	24	3.76		무	26	2.76		무	26	2.93		분담	11	3.66	
		건설 기술의 기초	가정	26	1.91	-8.472***	유	24	2.83	.664	유	24	2.74	.089	전담	39	2.47	-4.557***
			기술	24	3.60		무	26	2.63		무	26	2.71		분담	11	3.61	

* p <.05, ** p <.01, *** p <.001

는 단원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 부전공 유무, 비전공 영역 지도 경험 유무에 따른 영역별 교수 활동 자신감의 차이의 결과는 집단별 N의 수가 너무 적은 집단이 있어서 통계적 일반화에 무리가 있는 점이 제한점이라 생각된다.

운영형태에 따른 자신감의 차이를 보면 영역별 분담지도가 전담지도에 비해 모든 단원에서 더 높은 자신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10학년의 '에너지와 수송', '건설 기술의 기초' 단원이 p<.001 수준에서 영역별 분담지도하는 교사가 전담지도하는 교사보다 자신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7학년의

'미래의 기술', '제도의 기초', 8학년의 '기계의 이해', '재료의 이용', 10학년의 '가정 생활의 실제' 단원은 $p<.01$ 수준에서, 9학년의 '가족의 식사 관리' 단원은 $p<.05$ 수준에서 영역별 분담지도하는 교사가 전담지도하는 교사보다 단원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운영 형태에 따른 단원의 자신감이 유의적으로 나타난 단원들을 살펴보면 가정 관련 단원보다는 기술 관련 단원이 훨씬 많고 유의성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술 전공 교사가 가정 관련 단원을 지도할 때 느끼는 부담보다 가정 전공 교사가 기술 관련 단원을 지도할 때 느끼는 부담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5. 「기술·가정」 교과 담당 교사의 만족도

학교에서의 「기술·가정」 교과 운영형태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기술·가정」 교과 운영형태에 대한 만족도

N(%)

운영 형태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	평균	SD	t
전담지도	1(0.6)	21(13.0)	52(32.3)	6(3.7)	80(49.7)	2.79	.59	
분담지도	1(0.6)	7(4.3)	63(39.1)	10(6.2)	81(50.3)	3.01	.51	-2.584*
합 계	2(1.2)	28(17.4)	115(71.4)	16(9.9)	161(100.0)			

* $p < .05$

<표 10>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과 운영형태에 대한 만족도 차이

N=161 (전담 80, 분담 81)

운영형태	전공				부전공 유무				비전공 영역 지도 경험 유무			
		N	평균	t		N	평균	t		N	평균	t
전담지도	가정	48	2.21	-.077	유	28	2.29	.814	유	33	2.27	.765
	기술	32	2.22		무	52	2.17		무	47	2.17	
분담지도	가정	46	2.04	1.126	유	26	1.92	-.778	유	39	1.97	-.224
	기술	35	1.91		무	55	2.02		무	42	2.00	

운영형태에 따른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에 1점, '불만족'에 2점, '만족'에 3점, '매우 만족'에 4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형태에 따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5$), 특히 전담지도의 경우 평균이 2.79이나 분담지도의 경우에는 평균이 3.01로 분담지도하는 교사가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담지도의 경우 비전공 영역 지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운영형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운영형태에 대한 만족도가 전공, 부전공 유무, 비전공 영역 지도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와 같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 부전공 유무, 비전공 영역 지도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운영형태에 대한 만족도가 일반적으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1학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 운영에 대한 교사의 애로점, 교수 활동 자신감 및 만족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기술·가정」 교과의 운영형태는 전담지도와 분담

지도가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져 2001학년도 시행초기보다는 영역별 분담지도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국·공립학교와 남녀공학인 학교에서 영역별 분담지도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교사들이 「기술·가정」 교과 지도와 관련하여 느끼는 애로점은 비전공 영역의 기능 부족, 비전공 영역의 지식 부족, 학생들의 학습 흥미 저하, 수업 자료 부족, 평가에 대한 부담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가정」 교과의 내용 영역에 대한 교수 활동 자신감에서는 전공에 따라서는 가정 영역은 가정과 교사의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고, 기술 영역은 기술과 교사의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형태에 따른 자신감의 차이를 보면 모든 단원에서 분담지도하는 교사가 전담지도하는 교사보다 교수 활동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낸 단원은 7학년의 '미래의 기술', '제도의 기초', 8학년의 '기계의 이해', '재료의 이용', 10학년의 '가정 생활의 실제', '에너지와 수송', '건설 기술의 기초' 단원이었다. 운영 형태에 따른 교수 활동 자신감이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낸 단원들을 살펴보면, 가정 관련 단원보다는 기술 관련 단원이 더 많고 유의성도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술 전공 교사가 가정 관련 단원을 지도할 때 느끼는 부담보다 가정 전공 교사가 기술 관련 단원을 지도할 때 느끼는 부담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운영형태에 따른 만족도는 전담지도보다 영역별 분담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영역별 분담지도하는 교사가 전담지도하는 교사에 비해 거의 모든 단원에서 교수 활동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고 운영형태에 따른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 점은 일선 학교에서의 「기술·가정」 교과 운영에서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의 희망에 따라 「기술·가정」 교과를 영역별 분담지도 할 수 있도록 교원 수급, 담당 학년 배정, 시수 배분 등에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참고문헌

고인숙(2003).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교과 수업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 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노선(2001). "「기술·가정」 교과 운영에 대한 교사, 학교장, 교육전문직의 인식과 요 구 및 관련 변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교육부(1994a).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부(1994b). "중학교 기술·산업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III) -수학, 과학, 기술·가정-".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권영출(2001). "가정·기술 교과 통합은 상식적 오류". 새교육, 558, 20-23.

권지영(2003). "제7차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 운영의 평가 - 가정 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수(1993). "중학교 기술·가정 통합교과의 교육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종(2003). "기술, 가정교과 병합에 따른 교과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숙(1991).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내용과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숙(2003).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의 가정분야 교육과정에 대한 가정과 교사들의 운영 현황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효순(1997).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중학교 가정과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가정전공 교사와 비전공 교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교부(1988). "중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박인애(1991). "기술·가정 통합교과 내용 구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순옥(2002).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운영 형태와 관련 만족

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순희(2001). "중학교 가정과와 기술·산업과 교사의 교수 행동과 교수 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인권(2002).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의 기술 영역에 대한 담당 교사의 필요성 인식조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인경(2003). "가정과 교육에서의 통합적 접근과 과제". 교원교육, 19(1), 199-209.

이연숙(2002). 「가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신광출판사.

이종이(1995). "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가정교과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 변인". 서울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명희(2001).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의 교수 능력에 대한 인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현주(1992).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교육내용의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현희(1997). "중학교 가정 교과 내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경철(2001).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 설정의 배경". 한국가정과 교육학회 지, 13(1), 107-116.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1학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 운영에 대한 교사의 애로점, 교수 활동 자신감 및 만족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중,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 담당 교사들에게 질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기술·가정」 교과의 운영형태는 전담지도와 분담지도가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져 2001학년도 시행초기보다는 영역별 분담지도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국·공립학교와 남녀공학인 학교에서 영역별 분담지도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교사들이 「기술·가정」 교과 지도와 관련하여 느끼는 애로점은 비전공 영역의 기능 및 지식 부족, 학생들의 학습 흥미 저하, 수업 자료 부족, 평가에 대한 부담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가정」 교과의 내용 영역에 대한 교수 활동 자신감에서는 전공에 따라서는 가정 영역은 가정과 교사의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고, 기술 영역은 기술과 교사의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형태에 따른 자신감의 차이를 보면 분담지도하는 교사가 전담지도하는 교사보다 교수 활동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운영형태에 따른 만족도는 전담지도보다 영역별 분담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영역별 분담지도하는 교사가 전담지도하는 교사에 비해 거의 모든 단원에서 교수 활동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고 운영형태에 따른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 점은 일선 학교에서의 「기술·가정」 교과 운영에서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논문접수일자: 2005년 6월 21일, 논문심사일자: 2005년 11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3월 13일